전략 소식지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2016년 10월 2권 10호

9월 주요활동

한미동맹, 대북 무력시위 비행 (9월 13일, 21일, 26일)

5차 핵실험 등 최근 자행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9월 한 달간 세차례 무력시위를 벌이며 대한민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보여주었다.

미 공군 B-1B 랜서와 한국 공군 F-15가 21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 사진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는 지난 1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에 도착한 후 오산기지 상공에서 저공비행했다. 미 공군은 21일 B-1B 랜서 2대를 또다시 한반도에 전개했고 이중 1대는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또 26일 실시된 합동해상훈련에서는 미군의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Spruance함(DDG 111)은 한측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대잠 헬리콥터와 한미 해군 해상초계기(P-3)가 참가해서 적의 수상, 수중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통합 능력을 보여줬다. 양국 군지휘부는 이와같은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사 사령관 브룩스 장군은 "북한의 핵실험은 긴장을 고조시키며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을 끼친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역내에서 동맹국을 방어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통해 확고한 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전역 (9월 23일)

지난 23일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김현집 장군은 용산미군기지에서의 전역식을 끝으로 군 복무를 마무리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김장군의 헌신은 북한의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지금, 한미 양국에게 귀중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했다. 신임 부사령관에는 임호영 장군이 취임했다.

브룩스 장군은 "연합사를 위해 발휘한 김장군의 리더쉽은 인상적이었고, 그의 봉사로 인해 한미동맹은 더 견고해지고 효율적으로 변신했다"고 회상하며 "임장군을 환영하고, 한국군에서 축적한 그의 뛰어난 성과를 통해 김장군이 이룬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의무후송훈련, 한미 파트너쉽의 중요한 본보기가 되다 (9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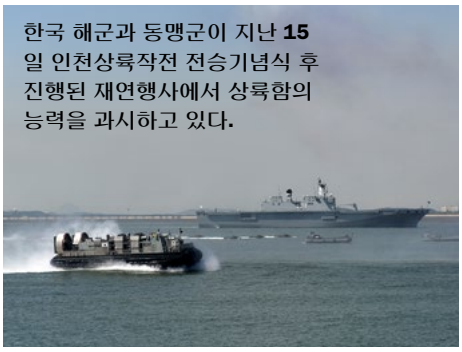
동해안에서 진행된 작전도중, 유도탄 구축함 USS Decatur는 Destroyer Squadron 15 사령관에게 승조원 한명이 긴급후송이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보낸다. 하지만 Decatur는 미 공중자산의 구역을 벗어난 상태였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의 631 중대는 UH-60 블랙호크헬기를 포항에서 긴급 출동시켜 미 승조원의 구조에 나선다. UH-60헬기가 Decatur에 접근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공군 HH-60가 의료진을 동반해 청주기지를 출발해서 울릉도에서 구출된 승조원을 만나고, 그후 승조원은 육지에 위치한 아주대학병원으로 이송된다.

이번 연습과 관련해 게렛 밀러 해군 중령은 "한국 해군은 우리팀과 함께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줬다"며 "Decatur를 훌륭하게 지원하고 우리 승조원을 안전하게 수송해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의무후송임무의 성공적인 시행은 우리 해군과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9월 15일)

지난 15일에 열린 제6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한미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을



한국 해군과 동맹군이 지난 15일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후 진행된 재연행사에서 상륙함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 해군 사진/ ESSENMACHER 하사

비롯한 3,000명 이상의 초대손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한미해군 사령관 빌 번 소장은 이자리에서 "한미 양국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쉽은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전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주한미해군 이취임식 (9월 8일)

주한미해군 사령관 빌 번 해군 소장은 8일에 열린 이취임식에서 보국훈장 천수장을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여 받았다. 이 행사에서 브래드 쿠퍼 소장은 제35대 주한미해군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주한미해군 사령관 빌 번 해군 소장이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받고있다.

(미 해군 사진/ BREEDLOVE 상병)

9월 주요방문객

사령부와 우리의 임무 및 부대원들에 대해 알리고 견해를 나눌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다음은 지난 달 사령부를 찾아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

- 마크 뤼터, 네덜랜드 총리
- 빌 워커, 알라스카 주지사
- 데런 맥듀 장군, 미 수송사령부 사령관
- 데이비드 시어 대사, 미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 레슬리 S. 아이랜드, 미 재무부 정보분석차관보
- 캐서린 해멕, 미 육군성 설비에너지환경차관보
- 톰 브레이디, 미 국방부 소속 교육처장